

문학 스타작가 8인 통해 본
일본 사회 사상의 맥락 분석



문단 아이돌론

사이토 미나코 지음

현재 일본의 가장 인기 있는 작가는 무라카미 하루키다.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를 만큼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1980년대의 하루키는 과히 신드롬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인기를 구가했다. 1988년 일본 연간 베스트셀러 1위와 3위는 각각 '노르웨이 숲'과 '댄스 댄스 댄스'였으며, 현재 이 작품은 모두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있을 수 없다. 문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에는 앞서 언급한 무라카미 하루키뿐 아니라 '여성 시대의 기수'로 일컫는 우에노 지즈코, '지식과 교양의 편의점화' 다치바나 다카시카까지 스타 작가들이 있다.

현재 이들의 배후에는 그들을 스타덤에 올려놓은 저널리즘과 수많은 독자가 존재한다. 문예평론가 사이토 미나코가 펴낸 '문단 아이돌론'은 일본문학 스타작가 8인이 어떻게 평가받고 보도되었는지를 들여다본다.

저자는 논리적인 분석으로 신선한 관점

을 제시하며 문단과 논란의 성역을 가리지 않고 신랄한 비평을 가한다. 책에 언급된 스타 작가 8인을 통해 일본 사회의 배후에 흐르던 사상의 맥락을 분석한다.

저자는 하루키는 '왜 잘 팔렸는가'보다 '왜 잘 논해졌는가'에 집중하면서 그 이유로 작품의 특징을 '개입성'에서 찾는다. 즉 어린이 게임 마니아가 '드래곤 퀘스트'에 열중하듯 어른 문학 마니아는 하루키 작품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으며 '하루키 퀘스트'에 열중했다.

하야시 마리코와 우에노 마리코는 '여성 시대'가 낳은 작가들이다. 저자는 두 작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양극과 음극의 관계를 이루었지만, 고지식한 인간을 상대로 싸웠다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본다.

다치바나 다카시카는 언론인으로 출발했지만 '다나카 가쿠에이 연구-그 금맥과 인맥'이라는 기사를 발표한 후 일약 '거대 악을 파헤치는 정의의 언론인'이 되었다. 그는 저널리즘의 세계와 학문의 세계 모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문과와 이과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식의 탐구자'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저자는 각 장르가 전문화되는 가운데 다치바나 다카시카 '지식의 거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가 돌보았던 것은 아닌지 묻는다. 즉 자연과학계와 인문과학계로 분단된 언론계였기에 '지식의 거인'이 군림할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다.

<한겨레출판·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경기변동은 라이프사이클의 총체적 확대



호황 VS 불황

군터 뒤크 지음

한국 경제는 현재 긴 불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모두가 불황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해 한다. 개개인의 성실한 경제 활동과는 무관하게 경기변동과 순환이 경제생활의 많은 부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IBM 연구소의 수석엔지니어, 수석개발자로 활동한 바 있는 군터 뒤크 수석박사가 펴낸 '호황 VS 불황'은 경기순환의 비밀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경기변동을 다룬 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전

공서 위주였다. 이 책은 경기 변동의 원인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일상의 사례를 들어 풀어준다.

저자는 타자기의 라이프사이클을 예로 든다. 타자기는 등장 초기에는 신기술로 각광을 받았고 이내 만년필을 대체하며 시장을 장악한다. 그러나 컴퓨터의 등장으로 타자기 사용은 내리막을 걷고 마침내 박물관에 전시될 운명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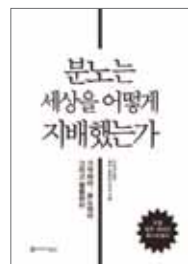
경기변동은 이러한 라이프사이클의 총체적 확대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한꺼번에 많은 신제품이 등장하고 그에 따라 과거에 지배적이던 제품들이 쇠퇴하고 사라져 간다. 저자는 이처럼 경기변동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원더박스·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분노는 세상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페터 슬로터다이크 지음



단테는 그의 대표작 '신곡'에서 "지옥은 모든 희망이 없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희망이 없는 곳에는 분노만 가득하다.

알려진 대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의 첫머리는 '분노'로 시작한다.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아! 펠레루스의 아들 아킬레스의..." 이렇듯 분노는 최고조에 달한 비극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쓰인다.

많은 이들의 가슴에는 분노가 담겨 있다. 표출하지 않을 뿐이지 분노를 숨기고 순응하며 산다. 분노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 중의 하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분노는 필요한 것이다. 영혼을 충족시키고, 용기를 북돋우기 때문에 분노가 없다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하지만 분노를 지도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만 동지로 삼아야 한다."

새 대통령의 선출로 기대와 희망이 넘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나라냐"하는 비아냥과 분노가 넘쳤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깨진 자리에는 배신이라는 분노가 들어왔다.

모든 분노는 믿음이 상실되는 순간 발생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분노를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프롤레타리아의 믿음은 집단적 맹신을 낳았고, 이에 분노한 시민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그러나 권력자들의 자리 이동으로 귀결됐다. 분노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조명한 책이 출간



지난 2월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17차 광주 시국 촛불대회'에서는 국경농단에 실망한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됐다. <광주일보 DB>

됐다. 칼스루에 조형대학 미학 및 철학과 교수인 페터 슬로터다이크가 펴낸 '분노는 세상을 어떻게 지배했는가'는 분노를 발전과 변화의 중심 동력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2015년 프랑스에서는 사상 최악의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IS 소행으로 밝혀진 이 테러에서 10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연이은 미사일 실험 등을 통해 북수를 위한 적대적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분노로 인한 폐해가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관리하고 긍정 에너지로 전환할 것인가.

저자는 분노의 기획된 형태는 은행의 형식을 차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분노의 경제학'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는 일반은행이 하는 것처럼 분노라는 자원을 모으고 투자자를 끌어모아 이를 투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역사는 분노에 의한 투쟁의 역사다. 분노를 집단에 투자하는 순간, 역사는 가장 고귀한 야망이라는 사업이 된다는 논리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분노은행'을 세워 역사 속 수많은 분노를 공동된 역사로 뭉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작은 규모의 분노를 더 고귀한 의미를 지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식이다. 이때 역사적 안목과 비전을 지닌 지도자는 집단적 분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거대한 에너지로 전이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한다. 개인들로 분노를 인식하게 하고 희망과 자부심을 드려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분노의 본질을 깨달았다면 진정으로 분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무차별적인 폭력이나 나르시즘에 빠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분노는 중요도 증폭시킬 뿐이다. 정당한 역사의 방향을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에너지가 집결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저자는 권력자들 탐욕에 의해 조정된 분노에 더 이상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진정한 시민의 힘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이들과만 진정한 분노의 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아기있는집·1만4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 모두에게는 유년의 상처가 있다



홍터와 무늬

최영미 지음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50만 부가 넘는 판매를 기록하며 문학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최영미 시인. 이번엔 최 시인이 아름답고도 서늘한 유년을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을 펴냈다. '홍터와 무늬'는 누구나 통과해야 하지만 누구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유년시절을 시적인 언어로

답아낸다. 2005년 처음 출간한 책은 이번엔 내용을 수정해 개정판으로 발행했다. 소설은 한 소녀의 성장담이자 유년의 상처를 품고 자란 한 인간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삶의 기록이다. 유년이라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기쁨과 슬픔, 수치심과 죄의식은 인간의 영혼에 홍터로 남고, 홍터는 그 사람을 이루는 무늬가 된다.

소설은 우리 모두에게는 유년의 상처가 있음을 보여준다. 보이는 보이지 않든 홍터나 무늬로 남아 있다는 것을. 소설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자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문학동네·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미술·문학·철학의 통섭 추구는 시대의 아이콘



미술과 문학의 파타피지컬리즘

이광래 지음

미술과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작가들의 통섭적 능력이다. 현대에까지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는 작가들은 예외없이 통섭력이 뛰어났다.

강원대 철학과와 중국 라오닝대 철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이광래 교수가

펴낸 '미술과 문학의 파타피지컬리즘'은 상호 통섭을 추구했던 작가들을 불러낸다. '파타피지컬리즘'은 프랑스 소설가 알프레드 자리가 만든 신조어로 "전통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생각해 낸 이상적인 세계관"을 뜻한다.

저자는 현대의 많은 작가들이 현실에 없는 공간에로까지 사유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데, 그것은 유행이나 새로 생김 때문이 아니라고 본다. 역사적으로 시대의 아이콘이자 모멘텀이 됐던 작가들이 미술, 문학, 철학적 융합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미메시스·2만9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삼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시술 전

시술 후

시술 전

시술 후

대산 종합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짐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010-8628-0482